

4강 절대적 상관주의

(1교시)

◆ 자연이라는 이름의 우아한 냉혹

※ 학습목표

『종의 기원』의 두 단락을 통해 다윈의 자연관을 이해한다.

▲ 자연이라는 이름의 우아한 냉혹

-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투쟁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론상 인정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지만, 동시에 이 결론을 항상 명심해두는 것 이상으로 곤란한 일은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결론이 철저하게 마음에 젖어들지 않는다면 자연의 경제 전체나 그에 포함되는 분포, 희소성, 풍부함, 멸종, 변이 등의 모든 사실이 어렴풋이 인정될 뿐이거나 또는 전적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자연’의 얼굴이 기쁨에 빛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따금 식량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본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한가롭게 지저귀고 있는 새들이 대체로 곤충이나 씨앗을 먹고 살아가며 이리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거나 잊고 있다. 우리는 이들 노래하는 새나 그 알이나 새끼 새가, 육식하는 새나 육식하는 짐승에 의해 얼마나 많이 잡아먹히고 있는가를 잊는다. 우리는 지금은 식량이 남아돌아가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어느 계절에도 반드시 그렇지 못하리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지는 않는다.

-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식물이 자라서, 숲에는 새가 노래하고, 갖가지 곤충이 훨훨 날아다니며, 습기찬 흙 속을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찬찬히 살피면서, 그런 개개의 생물이 제각기 기묘한 구조를 가지며, 상호간에 매우 다르고 서로 매우 복잡한 연쇄로 얽혀있지만, 그런 생물들이 모두 우리 주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참으로 흥미롭다. (...) 이와 같이 하여 자연의 싸움에서, 즉 기아와 죽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즉 고등동물의 산출이라는 것이 직접 귀결되는 것이다. 생명은 수많은 힘들(powers)과 함께 최초로 소수의 것, 혹은 단 하나의 형태에 붙어넣어졌다고 하는 이 견해, 그리고 이 혹성이 확고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회전하는 동안, 이렇게도 단순한 발단에서 극히 아름답고 극히 경탄할 만한 무한한 형태가 생겨나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have been, and are being, evolved)는 이 견해 속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다윈이 성경에 반대한 이유는 이 세계가 장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 선택만으로도(고도의 설계자를 상정하지 않고도) 세계의 장엄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윈은 자연의 기쁨 또한 말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다윈은 생존경쟁의 냉혹한 세계를 보고 눈감지 않고 나아가 장엄함을 길어냈다.

4강 절대적 상관주의

(2교시)

◆ 인위적인 선택과 자연선택

※ 학습목표

인위적인 선택과 비교해 자연선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다.

▲ 인위적인 선택(人爲選擇)과 진화

- 당시에는 원예와 사육이 대유행이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원하는 품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암수를 잘 골라내서 교배시키기만 하면 됐다. “가축의 형질(특징)을 약간 변경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벽에 분필로 원하는 생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당시 비둘기를 기르던 어느 육종가는 “어떤 날개도 3년만 있으면 만 들어낸다. 머리와 부리는 6년이 걸린다.”라고 말한다. 당시의 영국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하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윈의 눈은 번득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자기랑 닮은 새끼를 낳지만 완전히 똑같은 새끼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생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다. 또 그렇게 때문에 사육사들은 그중에서 특이한 놈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다. 생물 간의 ‘차이를 선택’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특징이 생겨나고, 그런 특징을 갖는 새로운 생물이 생겨났던 것이다. 인위적인 선택(人爲選擇)이 오래 쌓이면 새로운 생물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집에서 기르는 동식물들이 놀랍도록 다양한 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선택하고 교배시켜준 덕분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자연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주고, 인간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계속 쌓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진화시키겠다거나 품종을 개량하겠다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원숭이가 맛있는 바나나를 고를 때 그 목적은 의식하지는 않지만 분명 선택한다. 진화에 있어서 의식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자연은 인간의 결여가 아니다.

▲ 자연의 척도

- 이어서 다윈은 이렇게 말한다. “‘자연’ 하에서는 아주 경미한 구조나 체질의 차이라도 생존 투쟁에서 정밀하게 균형 잡혀있는 척도를 변화시켜, 그 때문에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열망이나 노력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인간의 시간은 얼마나 짧은 것인가? 그리고 그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성과는 ‘자연’이 모든 지질 시대를 통해 축적해온 거소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연의 산물은 인간의 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성질을 가지리라는 것과, 또한 자연의 산물은 가장 복잡한 생활 조건에 대해 무한하게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훨씬 더 뛰어난 장인의 솜씨를 가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을까?”

자연은 오래도록 야만의 장소였다. 서유럽에 한해서 보자면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로 자연에도 신의 섭리 혹은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은 하나의 책이 되었다.(마치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긴 번역서 같은 것이 되었다.) 다윈은 여기서 성경의 맥락을 충분히 살리면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지위를 아예 역전시키고 있다.

4장 절대적 상관주의

(3교시)

◆ 절대적 상관주의

※ 학습목표

개체적 차이가 진화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실락원』이 다윈의 진화론에 끼친 영향

1831년 비글호에 올랐을 때 다윈의 짐에는 밀턴의 『실락원』과 시집이 들어있었다. 다윈이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관찰하러 다닐 때 손에서 거의 떼어놓지 않았다는 『실락원』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연구자들이 문학작품을 박물학자의 힘든 일정을 위로해준 취미생활 정도로 경시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글쓰기를 생각의 반영으로 보는 대신, 그 자체가 사고를 구성한다는 입장에 서보면 『실락원』의 자연관을 포함하여 단어와 어구, 은유 등 밀턴의 글쓰기가 다윈의 생각과 글쓰기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 영국의 목가적인 자연과 열대 우림

다윈이 익히 알고 있던 자연은 목가적인 것이었다. 자연을 안정적인 균형과 조화, 다양한 생물들이 충만한 자족적인 공간으로 보는 생태적 자연관이 그것이었다. 비글호는 전 세계를 탐사했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다윈의 자연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다윈은 한쪽 눈으로 원시림의 왕성한 생명력을 쫓으면서 다른 쪽 눈으로는 죽음과 부패의 원시림을 놓치지 않았다. 자연은 자족적인 정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지력(知力)이 모두 감쌀 수 없을 만치 광대한 우주였다. 다윈이 다산성을 말할 때는 셀본식 풍요도 아니고 땀서스식 다산도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영상은 바로 열대의 풍요였다.

▲ 절대적 상관주의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핵심에는 생존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생존경쟁은 동종 간에 가장 치열하고 동종과 변종 간에 그 다음으로 치열하다. 자연환경이 불리할수록 더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가혹한 자연환경에서 가장 치열해진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윈이 말한 생존경쟁의 전형적인 형태는 인간간의 계급투쟁이나 전쟁 같은 것이 아니다. 다윈의 찬성자는 물론이고 반대자들 또한 다윈의 생존경쟁을 서로 경쟁하느냐 협동하느냐는 대립 구도 속에 넣고 보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윈의 대립구도는 경쟁이냐 협동이냐가 아니었다. 다윈의 경쟁은 변화를 외재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 대 생물의 관계다.**”라고 말한다. 다윈의 경쟁과 투쟁은 근본적으로 생물들을 개체로서 놓고 혹은 하나의 종으로 놓고 바라보는 개체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관계주의로 진입하려는 시도였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직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절대적 상관주의(absolute relativism 혹은 absolute interdependency). 다윈은 자연 상태에서 무한한 변이를 본 것이다. 그것은 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안에 미만해있었다. 다윈은 『종의 기원』

5판 이후에 기재된 “변이”를 모두 “개체적 차이 및 변이”라고 바꿔놓았다. 지구는 차이가 생산하는 진화의 순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다.